

질투하시는 하나님

효자제일교회 전도사·홍 순관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삼 사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와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개역, 출애굽기 20:1~7]

십 계명을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난주에 십계명이 결코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 드렸습니다. 혹시 지난 주간에 찬송가 바꾸신 분 안 계십니까? 찬송가 뒤에 있는 십계명들이 왜 서문을 잘라먹는지... 그건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아예 서문 자체도 없는 십계명이 뒤에 실려 있거든 찬송가를 바꾸십시오. 십계명 서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그런 찬송가 못 들고 다닙니다. 그나마 '나는 너를' 하고 점... 찍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라고 해둔 것은 그래도 아까우니까 쓰긴 써야겠죠. 십계명 서문은 그만큼 중요하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잠깐 요약하고 오늘 이야기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십계명 서문은 어떻게 본다면 대학교 합격 통지서입니다. 그러면 그 밑의 계명 열 가지는 그 학교 들어가서 지켜야 할 교칙에다 비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학교 들어가려고 온갖 고생을 다 해 가면서 열심히 공부해서 가고 싶었던 대학의 합격 통지서 받아든 그 기분을 아시는 분은 아시죠? 합격 통지서 하나 받아 들고 나면 그 밑에 입학금 고지서, 주의 사항들이 밑에 주루룩 붙어서 두툼합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든 별 관계없죠? 잘 보지도 않죠? 합격 통지서 받아든 이상 그 밑의 학교 교칙이 어떠한지 어떻게 학교 다니며, 이런 것들은 일단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것은 잃어버려도 괜찮습니다. 합격 통지서만 확인했으면 더 이상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합격 통지서를 받은 기쁨은 잊어버리고 그 밑의 교칙을 하나 하나 살펴보면 학교가 며 이 따위냐고 불만을 토하면 이상한 사람입니다. 무엇 때문에 십계명을 주어서 사람을 이렇게 얹어매느냐는 불만을 가진 분이 바로 그런 꼴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종 되었던 곳에서 불러내어서 내 백성으로 삼았다는 선언 이것이면 족합니다. 그 다음에 내 백성이니까 이렇게 이렇게 살아라 하는데 거기에 무슨 유감이 있었습니까? 너희는 이제부터 내 자녀요, 내 백성이다라고 선언한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만 섬기라고 하시는데 유감 있습니까? 유감이 있을 수 없습니다.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버려진 아이들을 데려와서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다 이제 이 집에서 이렇게 살자고 하는데 무슨 유감이 있었습니까?

십계명의 서문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동시에 그 서문이 있기 때문에 십계명은 우리에게 대단한 은혜입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선언한 이상 우리는 그 사랑에 감격하고 놀라워서 십계명 대로 살려고 애를 씁니다. 애를 쓰는데도 내가 부족해서 잘 못 지키면 어떻게 되나요? 서문이 우리를 살려줍니다. 못 지키고 못 산다고 해서 너를 다시 애굽 땅에 갖다 집어넣지는 않는다는 선언이 그 십계명의 서문입니다. 일단 내 백성 삼았으니까 잘 살아야지요. 그런데 내 자녀가 됐는데 잘 못하면 어쩍니까? 그래도 할 수 없이 내 자녀죠 뭐.

여러분, 자녀가 좀 마음에 안 들고 하는 것이 시원찮다고 갖다 버립니까 어떡합니까? 아이고 원수 하면 서도 자녀는 여전히 자녀입니다. 자녀가 아무리 원수 짓을 해도 도리 없습니다. 한번 부모는 영원한 부모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너희는 내 백성이라고 선언한 이상 계명을 지키고 안 지키고 간에 여전히 자녀란 말입니다. 너무 이렇게 말하면 함부로 살아도 괜찮다는 뜻으로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강조점은 아무렇게 살아도 좋다는 게 아니라 계명을 지키고 안 지키고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감사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여기에 한번 나오고 뒤에 한번 더 나옵니다. 그러나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다라는 선언은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런 느낌을 가지면 십계명이 우리에게 참으로 은혜가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며칠 전에 보니까 어떤 젊은 친구가 불만이 많은 모양이에요. “구약 성경 한번 읽어보십시오. 구약 성경의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요, 징벌하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하고 격분하는 투로 글을 써놓았더군요. 대체로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구약에 보면 심판, 징벌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성경을 잘 보셔야 합니다.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을 수 없는 사정이 무엇이었느냐를 살펴보는 것이 은혜롭습니다. 그렇게 심판하시면서도 거기에서 하나님의 안타까움이나 이 심판을 덜어볼려는 노력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왜 그걸 못 보는지 모르겠어요. 부모가 매를 들 때 우리 부모가 나에게 매를 들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을 이해할 수 있는 아들이면 그 부자 관계는 문제가 없습니다. 야단을 좀 맞고 매를 맞는다 하더라도 조금 지나면 그보다 더 아름다운 관계가 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실 때에도 심판, 징벌 이런 데만 관심을 갖지 말고 이런 심판을 행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그 안타까움과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애하심을 보여주는 대목이 무엇일까 하고 한번 찾아보십시오. 꼭 있습니다. 정말 있습니다. 그런 것에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 친구가 불만을 좀 늘어 놓았더라구요. 하나님이 질투하신다? 나쁘단 의미죠? 십계명 안에 질투하는 하나님이란 표현이 있는데 이 표현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언젠가 제가 아이들 데리고 이런 질문을 해본 적 있습니다. 성경에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있냐? 하고 물으면 있습니다라고 답이 나올 것 같아서 제가 유도 질문을 했죠. 먼저 질투에 대해서 설명하고 “애들이 질투는 남자가 더하냐? 여자가 더하냐?” 하고 물어봤어요. 질투는 누가 더하죠?

남자.

남자요? 세월이 언제 그렇게 변해 버렸나요? 아니 우리 교회만 그런 겁니까? 아니면 시대가 변한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여자가 더 하는 걸로 아는데 우리 교회 남자들 큰일 났습니다. 남자라고 대답하는데도 가만 앉아 웃고만 있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잠시 제쳐놓고 일반적인 얘기를 좀 합시다. 과거로부터 질투 그러면 여자가 하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 칠거지악에 질투가 있습니까? 있었던 것 같아요. 질투라 했는지 투기라 했는지 뭐 하나가 좌우간 들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남자는 질투 안 하고요? 우리 교회 말고요. 옛날에 남자는 질투 안 했습니까? 여자는 질투를 해도 이걸 바깥에 표현할 곳이 잘 없어요. 그러니까 주로 가정 내에서 이루어졌죠. 남자는 질투를 하면 바깥으로 문제가 드러납니다.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오뉴월에 서리가 내리죠. 남자가 질투를 하면요?

함박눈이 내려요.

함박눈이 내려요? 남자가 한을 품으면 주로 탈영을 잘 하죠. 군에 가 있는 남자들이 애인이 변심했다 소리 들리면 주로 총 둘러메고 수류탄 차고 튀어나옵니다. 나와서 뭐해요? 군에서는 근무지를 이동 할 때마다 꼭 신상명세서를 씁니다. 거기에 빠지지 않는 것이 애인 이름과 주소입니다. 쓰라는데 “없는데요” 했다가 맞아 죽을 뻔했어요. “없으면 임마, 친구라도 쓰고 친구라도 없으면 옆집 처자(처녀) 이름이라도 쓰라”는 거예요. 그 칸은 절대 못 비웁니다. 왜 그렇게 쓰라고 하는지 그 때는 몰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바로 탈영해서 총 뽕뽕 쏘면서 “누구 불러도” 이런 거 할 때 모셔올려고 써놓는 거예요.

지금도 기억에 선한 것이 동대구역 2층에 가면 다방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옛날 누가 올라가서 점령을 했거든요. 주변에서 소리만 나면 총을 쏘 대는 바람에 기차가 밤중에 불을 다 끈채 소리 없이 밀로 기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소리만 나면 쏘 대니까요. 한때 유명했던 사건입니다. 거기 앉아서 “누구 불러도” 이러죠? 만약에 본인이 해당되면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남자들은 고민 할 필요 없어요. 여자들은 잘 안그러니까. 가야 되요 말아야 되요? 좀 어려운가요? 갔다가 잘못되면요? 죽는데 어떻게 가요? 누가 제일 잘 불러가요? 엄마나 누나죠. 아버지는 그때 잘 안 가더라고요. 애꿎은 엄마나 누나가 불러가서 달래야지요. 그런데 잘 안되더라고요. 거기 가서 엄마나 누나가 마이크 쥐고 “아무 것이야! 내 왔다.” 하면 “엄마 말고

누구 불러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대개의 경우 결국은 죽는 걸로 끝이 나요. 남자들이 질투가 심해서 문제가 발생하면 주로 탈영입니다. 아니면 살인 사고가 많이 났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학교 구내에서 변심했다고 해서 살인사건 났던 적이 있습니다. 남자들이 질투를 안한다구요? 옛날에도 정말 심했습니다. 칠거지악에 그런 항목을 넣은 것은 역으로 남자들이 더 심하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괜히 지레 놀래서 넣은 셈이겠지요. 여자가 질투하면 정상이지요? 남자가 질투하면요? 정상이에요? 멋있어 보여요? 픽픽 웃는 품이 좀 시원찮다는 뜻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면요? 하나님이 질투하신답니다. 어떤 느낌이 들어요? 제가 이쯤 얘기하다가 끊어놓고 “애들아 성경에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는 표현이 있냐?” 하고 물으니까 없대요. 아무도 없대요. 이게 소위 유도심문에 걸린 겁니다. 예배시간에 십계명을 늘 교독하던 때이거든요. 매주 교독하는 그 십계명을 앞에 펴 놓고 성경에 질투하는 하나님이란 표현 있냐는데 애들이 없대요. 질투가 그런 거라면 하나님이 질투하신다 이걸 말이 안된다는 거죠. 그러냐? “십계명 한번 펴 보렴” 펴 보니까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괜찮겠어요. 남자들도 질투한다니까 그럼 하나님도 할 수 있겠네 그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질투의 다른 면을 조금 더 생각해봅시다. 이런 얘기 자주 하면 집에 가서 야단 맞을 소지가 있는데 다른 적절한 예가 없어서 할 수 없이 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여태까지는 아직 야단 안 맞았거든요.

저도 결혼하기 전에 연애를 3년 했었는데 연애하기 전에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던 생각은 서로가 결혼을 약속하고 이렇게 지내지만 그래도 나는 내 친구, 내가 옛날에 만나던 여자들하고 자연스럽게 다 만날 수 있어야 하고 상대도 마찬가지로 다른 남자들을 여전히 만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게 옳습니다. 둘이서 연애하기 시작했고 결혼을 약속하고 교제를 한다고 해서 주변에 있던 남자와 여자들을 다 끊어버린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의 폭이 좁아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줄일 것이 아니라 이전에 만나던 사람들은 그대로 다 만나는 것이 맞아요.

그래야 되는데, 하루는 헤어지던 때에, 그러니까 결혼 약속하고 연애를 시작한지 얼마 안 되었던 때라고 기억을 하는데 그 때 시외버스 터미널이 남부교회 바로 앞에 있었습니다. 지금도 가 보시면 아, 저게 옛날에 터미널이었구나 싶은 지역이 그 모습대로 남아 있습니다. 만났다가 헤어지면서 대구로 보내고 저는 집으로 돌아와야 하는데 거기서 버스를 태웠는데 버스 타러 올라가더니 뽕 돌아서서 “다른 남자들 여전히 만나도 괜찮죠?” 하는 거죠. 그런데 엉겁결에 “안돼”라고 고함을 째 질렀는데 다음 순간에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나는 그래도 사람이 좀 멋있게 생각하고 멋지게 산다고 생각했는데 순간적으로 “안돼” 했으니 이걸 실수다 싶었죠. 여전히 멋지게 목소리를 작 낮춰서 “아, 그럼 당연히 이 사람 저 사람 다 만나면서 그 가운데서도 나를 제일 좋아해야 되는 것이지” 뭐 이렇게 말을 했어야 했는데 느닷없이 입에서 “안돼” 소리가 튀어나간 거죠. 그것도 박력있게 튀어나갔던 모양이에요. 박력있게 나가긴 나갔는데 그게 웬지 모르게 자꾸 부끄러웠어요.

그때 영해에서 하숙을 하고 있을 때인데 하숙집에 올라가 있는데도 며칠 동안 자꾸 부끄러웠어요. 내가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좀 더 멋있게 보였어야 했는데... 그리고 좀더 멋진 남자로 남았어야 했는데... 웬지 자꾸 부끄러워요. 편지가 바로 왔더군요. 그때는 일주일에 편지를 거의 두통씩 썼으니까요. 두통씩 쓰면 재미있습니다. 오는 편지에 답장을 써서 보내면 답장 오기 전에 그 전의 편지가 또 오거든요. 편지가 겹치면서도 행복하던 때였는데 제가 일주일에 두통 정도는 부지런히 썼어요. 제가 많이 쓰고 우리 집사람이 농땡이를 쳤어요. 그 편지에 제가 제일 부끄러워했던 그 대목이 언급되어 있는 것입니다. “안돼”라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아, 이 사람이 이제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그게 굉장히 기쁘더라고요. 그 편지를 받아놓고 제가 한편으로는 몹시 부끄러웠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기쁘고... 이게 뒤죽박죽이 돼서 느낌이 참 묘했답니다. 부끄럽고 행복하고... 전혀 실감이 나지 않으면 연애를 해보세요. 누군가를 몹시 사랑해보신 분은 저 사람이 나 때문에 질투하는구나 이게 얼마나 기쁜지 아시지요?

남이 볼 때 질투는 참 부끄러운 애깁니다. 쪼다 같은 짓입니다. 그러나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나로 인해 질투한다는 걸 느꼈을 때에 행복감요? 큼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부부 사이가 뽕뽕하고 문제가 있을 때 남편 보고 “아이고, 당신 질투하나?” 이걸 놀림입니다. 그러나 쳐다보기만 해도 사랑스러울 때 남편이 슬쩍 질투하는 김새가 보이면 속으로 엄청나게 즐기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질투란 놀라운 사랑의 한가지 표현 방식일 뿐이란 뜻입니다. 성경의 내용이 뭘니까? 성경이 뭘 기록한 책입니까? 간략하게 줄여서 표현하면 하나님 혹은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무슨 얘기가 기록된 게 성경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라고 해도 좋습니다만 저는 하나님의 사랑 고백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 고백입니다. 그 사랑 고백을 다른 말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쪽팔리게 "나도 질투할 줄 안다."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느냐는 애깁니다.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시절에 심판을 철저하게 하셨습니다. 심판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해서 심판한 이후에 그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몹시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그것이 '다시는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의미로 나타나죠.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8장입니다. 주일 오후에 저하고 같이 창세기 공부하신 분들은 대답하지 마세요. 우리 구역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네요. 8장 2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향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의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이런 홍수로 세상을 멸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이유가 뭐라고 되어있죠?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이에요? 악하면 심판을 해야지요. 어려서부터 악하니까 심판을 해야지요. 어려서부터 악한데 왜 심판을 안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의 계획이 불완전하다...

그런데 왜 심판을 안 하느냐는 얘기에요?

심판 하나 안 하나...

방법이 없다 이 말씀이죠? 그럴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어려서부터 이 악한 놈들을 잘못 할 때마다 심판했다가는 남아날 게 없으니까 심판 안 하겠다는 뜻입니다. 어느 쪽 시각으로 보셔도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심판 안 하신다고요? 해서 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에게 아주 대차게 한번 나가보십시오. 부모님이 안 머라/중/합니다. 왜요? 싫어서 뭘 인간이 아니니까 아예 내버려두는 거죠. 그 다음부터 참 편(?)합니다. 옛날에 어느 집에 며느리가 둘이 있었는데요. 시아버지가 위의 첫 며느리한테는 얼마나 구박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잘 하는 며느리한테는 그렇게 구박을 하고 둘째 며느리한테는 아예 말도 안해요. 이웃사람이 물었어요. "잘 하는 첫 며느리는 그렇게 구박을 하고 둘째는 왜 저렇게 내버려두니까?" "인간이 인간 같아야 싫지" 그게 답이거든요.

홍수 심판을 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심판 안 하겠다는 것은 사람들이 개과천선했거나 뭐 달라져서가 아닙니다. 해봐도 이게 되지 않을 일이나 이 방법을 쓰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 잘 했나요? 아니요. 즉시 돌아서서 여전히 또 반항을 합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작전을 바꾸시는 겁니다. 아니야. 이 방법으로는 안되겠어. 그래서 아브람을 불러냅니다. 아브람을 불러내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습니다. 그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서 자기 백성으로 삼습니다.

바로 그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이스라엘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삼고 키워나가겠다 하는데 이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잘한 백성입니까 안한 백성입니까?

지독하게 안한 백성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사사기를 들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때는 평온하게 살지만 우상숭배하면 하나님께서 다른 이 민족을 들어서 칩니다. 그러면 이 민족의 압제를 받습니다. 괴로워 괴로워 못살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빌면 하나님께서 또 사사를 보내서 해방을 시키죠. 평온하게 좀 살다보면 또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러면 또 이민족이 쳐들어옵니다. 이걸 계속 해서 반복하는 게 사사기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한 여덟 번 정도 반복할 겁니다. 사사기의 전체 내용은 그것입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았느냐를 기록한 것이 사사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독하게 안 들었어요.

왕정시대로 넘어가면 선지자들이 많은 지적을 하다가 끝에 가면 너희가 이렇게 하다가는 멸망당한다고

수없이 경고를 합니다. 특별히 소선지서에 이런 내용이 많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망해버렸죠. 하나님은 그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 너희가 끝내 말 안 들으면 그 다음 방법 또 있다. 아브라함을 불러내셨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셨던 하나님께서 또 불러낸 것이 뭐죠? 교회입니다. 교회의 의미가 불러내신다는 뜻입니다. 믿는 성도들을 불러내서 교회를 만드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게 하시고 그를 믿는 자를 불러내서 교회를 만드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께서 걱정하셨던 그 뜻을 이루고야 말리라는 것이 성경입니다.

여자가 한을 품으면 어쩐다고요? 성경은 하나님이, 그렇게 표현을 하면 안될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이 한을 품으신 겁니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라는 말은 내가 한번 마음먹은 이 사랑을 끝까지 이루고 말겠다는 선언입니다. 하다하다 안되면, 심판 안 하겠다고 하셨으니 심판 안 하겠다 그러나 이 사랑 꼭 이루고 만다. 누굴 희생시켜서라도 이루고야 말리라?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희생시켜서라도 이 사랑을 이루고 말겠다”라는 선언이 담긴 것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입니다. 사랑하겠다는 것이죠. 끝까지.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목이 터져라고 외쳤던 이야기를 요약하면 전부 ‘하나님만 섬겨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섬겨라. 이것이 주된 메시지입니다. 그 외에 선지자들이 할 얘기가 별로 없었어요. 출애굽한 목적을 뭐라고 설명하죠?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왜 우리 백성을 보내달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출애굽기 8장을 한번 봅시다. 이 표현은 8장, 9장, 10장에 걸쳐서 계속 나옵니다. 8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와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임이라’ 나를 섬기도록 내 백성을 보내라고 요구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서 이끌어 나가고자 하시는 목적은 나를 섬기게 함이다라는 선언이죠. 여호수아 24장으로 갑시다. 24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약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아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 삼아 당부하는 이야기도 이 이야기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여호와만 섬기라 그것이 너희가 평탄하고 너희가 잘되는 유일한 길이라고 선지자들 모두가 목청 높여 외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내 그 말씀대로 따라가지 않았습시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마저 버린다면 교회를 통하여서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새로 이루어가신다는 선언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란 표현에 들어있는 겁니다. 끔찍하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표현입니다.

선지자는 여호와를 섬기라는 얘기만 계속 반복하지만 하도 말을 듣지 않으니 여호와를 섬기지 않으면 징벌을 받게 된다고 선언하기도 합니다. 선지자들은 여호와만 섬기라고 외치고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라고 애절할 정도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라는 얘기를 계속 반복합니다. 잘 아는 구절이지만 확인해봅시다. 이사야 1장입니다. 어떻게 보면 처절하다 싶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애걸복걸하는 듯 합니다. 이사야 1장 2절,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걸 뭐라고 얘기해야 할까요? 울부짖음요?

절규요.

집사님! 표현이 참 좋습니다. 울부짖음보다 ‘절규’하니까 더 실감이 나네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식으로 하면 “야, 이...” 뭐니까?

야, 이 짐승아.

점잔은 표현이네요 그죠? 야, 이 짐승아, 소나 나귀보다 이 못한 인간들이 하는 애깁니다. 하나님께서 뭐가 답답해서 그렇게까지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런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다니셨다는 사실입니다.

호세아서로 갑시다.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한번 더 반복하죠. 우선 호세아 2장을 펴 놓으세요. 우리 교회에서 정말 아끼고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 전도사가 한사람 있었는데 어느 날 역 앞에 가서 이상한 여자를 데리고 와서 결혼하겠다고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호세아 선지자의 경우가 바로 이런 꼴입니다. 장래가 촉망되는 위대한 젊은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 선지자를 보고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가령, 여러분들 교회의 젊은 전도사가 역 앞에서 이상한 여자를 구해다가 결혼하겠다고 어떡하겠어요? 그냥 두겠어요? 그 창녀였던 여자를 '사모님'이라고 부르겠어요? 당장 쫓겨나고 말지요. 이런 일을 호세아가 저지른 겁니다.

호 1:2를 보세요.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함이니라' 호세아에게 그렇게 결혼하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행음하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호세아가 그렇게 결혼하면 온 천지에 소문이 파다하게 퍼질 것입니다. 그러면 호세아가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결혼했다고 나를 비난합니까? 내가 이런 여자를 사랑하듯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이렇게 결혼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이 음란한 여자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남자를 따라서 집나간 아내를 찾아다 놓고 뭐라고 하는가 보세요. 호 2:19절입니다. '내가 네게 장가 들어 영원히 살되 외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몇 번이나 장가든다고 하십니까? 장가 못 들어서 안달이 난 분 같아요. 다른 남자에게 홀려서 집을 나갔을지라도 찾아와서 장가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연후에 네가 나를 알게되리라는 것입니다. 수 없이 반복되는 경고에도 끝내 우상숭배에 열심이었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장가들겠다는 것입니다.

호 6:1-3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 삼 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제발 여호와를 알자는 것이 호세아의 간곡한 당부입니다. 아니 그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애타는 당부입니다. 이렇게까지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애타는 마음으로 호소합니다. 이사야 1장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마는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다른 말로 하면 "야, 이 짐승만도 못한 놈들아!" 이 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오죽 답답하셨으면 이렇게까지 애타게 부르짖고 있을까요? 이걸 무엇이라고 표현하면 될까요?

하나님의 절규.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질투입니다.

사람의 질투는 나와 네 가족이 죽고 나도 죽자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지만 하나님의 질투는 내가 이렇게 너희를 사랑하노라는 고백입니다. 아니, 너희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결국은 사랑하게 만들고야 말겠다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랑을 이루고야 말 것입니다. 교회를 통하여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이 하나님의 질투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감사합니다.

이런 질문으로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입니까?

부자관계.

대답 잘 하셨습니다. 부자관계 맞아요? 요즈음 아들은 아버지 말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잘 안 들어요.

데려온 자식이 잘 들어요 낳은 자식이 말을 잘 들어요?

데려온 자식.

왜 데려온 자식이 말을 더 잘 듣지요?

쫓겨날까 봐서요.

그렇습니다. 낳은 자식은 말을 잘 안 듣는 수가 많아요. 왜요? 쫓겨날 염려가 없어요. 그런 두려움 때문에 말을 잘 듣는 데려온 자식을 쳐다 볼 때마다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두렵습니까? 두려워서 말을 잘 듣는 데려온 자식 아닙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고 무를래야 무를 수도 없는 부자지간임을 잊지 마십시오. 말 안 듣는다고 어찌시겠어요?

한번 아버지는 영원한 아버지입니다.

그 대답이 아주 바른 답입니다. 그러나, 긴 설교 끝에 본론은 제쳐두고 귀퉁이만 기억하는 것은 무슨 놀부 심뻔입니까? 오늘 제가 부지지간 얘기를 했습니까?

사랑하는 사이.

사랑하는 사이를 다른 말로 무슨 관계라고 해요?

연인.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연인관계라고요?

부부.

연인관계와 부부관계? 어느 쪽이 더 나아요? 연인관계는 취소될 수 있고 부부관계는 취소될 수 없는 관계인가요? 어차피 하나님께서 무르거나 파혼은 않으시니 같은 관계네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부자관계를 넘어서 연인같은 부부관계라고까지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사랑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질투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지을 수 없습니다. 왜 그렇죠? 벌이 두려워서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아직도 두려워하는 종의 마음을 가진 어정쩡한 부자지간인 셈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섬섬하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질투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범죄할 수 없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연인관계에 들어선 것입니다. 질투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섬섬하게 하지 맙시다.